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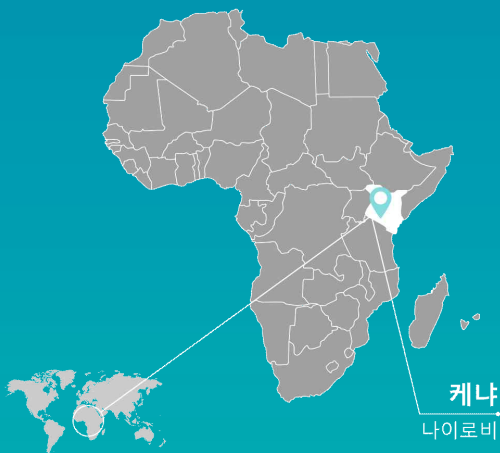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케냐

Republic of Kenya

2022년 5월 27일 | 책임조사역(G3) 박선미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580천 km ² 	인구 5,586만 명 (2021 ^o)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대외정책 친서방 정책 
GDP 1,097억 달러 (2021 ^o) 	1인당GDP 2,204 달러 (2021 ^o) 	통화단위 Kenya Shilling(Ksh) 	환율(U\$기준) 109.64 (2021년) 

-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 연안에 위치한 케냐는 한반도 면적의 2.6배에 달하는 국토와 약 5,586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남수단, 우간다, 탄자니아 등과 접경하고 있음.
- 2020년에 코로나19 사태로 -0.3%의 역성장을 보인 케냐 경제는 2021년에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민간소비 회복, Vision 2030 및 4대 국정과제(Big 4) 이행에 따른 공공 인프라 투자 등으로 7.2%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한 것으로 추정됨.
- 케냐 사회는 정치적 성향보다는 출신 부족에 따라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아 과거 대선 때마다 부족 간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어 왔음. 2022년 8월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루토 현 부통령과 야당 지도자 오딩가 후보가 유력한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두 후보 간의 양자대결 구도가 심화되고 있음.
- 케냐는 동아프리카의 맹주국으로서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등 지역공동체 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동아프리카 내 전략적인 경제·안보 협력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한편,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급격히 증대하여 현재 교역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대 중국 채무규모도 큼.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4. 2. 7 수교 (북한과는 2008. 9월 수교)

주요협정 무역·경제·기술협력협정('78), 문화협정('80), 항공협정('81), 대외협력기금차관협정('05), 무상원조협정('14), 이중과세방지협약('17), 투자증진·보호협정('17)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9	2020	2021	주요품목
수출	151,122	220,228	258,419	유기화학제품, 철강제품
수입	43,596	36,975	46,846	동, 알루미늄, 방직용섬유

해외직접투자현황(2021년 말 누계, 총투자 기준) 31건, 10,452천 달러

국내경제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성장률	3.8	5.6	5.0	-0.3	7.2
소비자물가상승률	8.0	4.7	5.2	5.3	6.1
재정수지/GDP	-7.5	-6.9	-7.4	-8.1	-8.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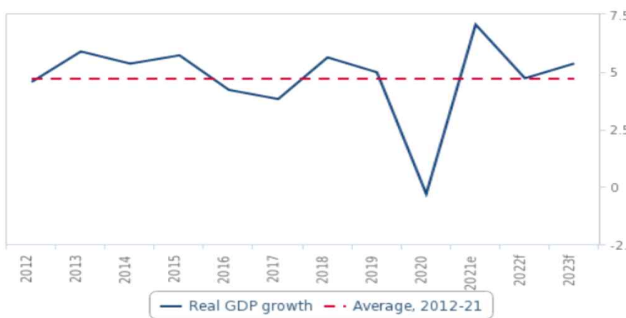
자료: EIU.

2021년 케냐 경제는 민간소비 회복,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7.2%의 플러스 성장 추정

- 케냐 경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임.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로 -0.3%의 역성장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민간소비 회복,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저효과 등으로 7.2%의 플러스 성장을 시현함.
- 2021년 11월 기준 성인 인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8.4%이나, 케냐 정부는 기부, 구입 등 다양한 경로로 백신을 확보하여 금년 말까지 성인 모두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경제활동 재개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임.
- 한편, 케냐 정부는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위축된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2022년 5월 1일부로 월 최저임금을 기존 13,500실링(약 14만 7천원)에서 15,120실링(약 16만 5천원)으로 12% 인상하였음.

[그림 1] 케냐의 연도별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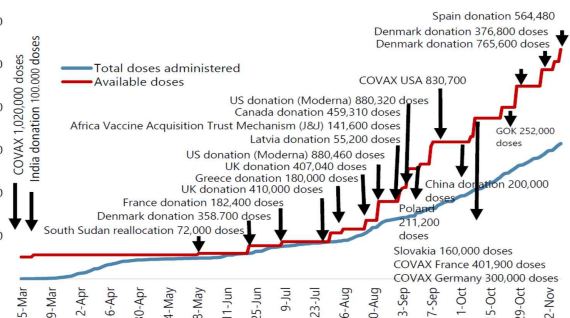
(단위: %)



자료: Fitch Solutions

[그림 2] 케냐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접종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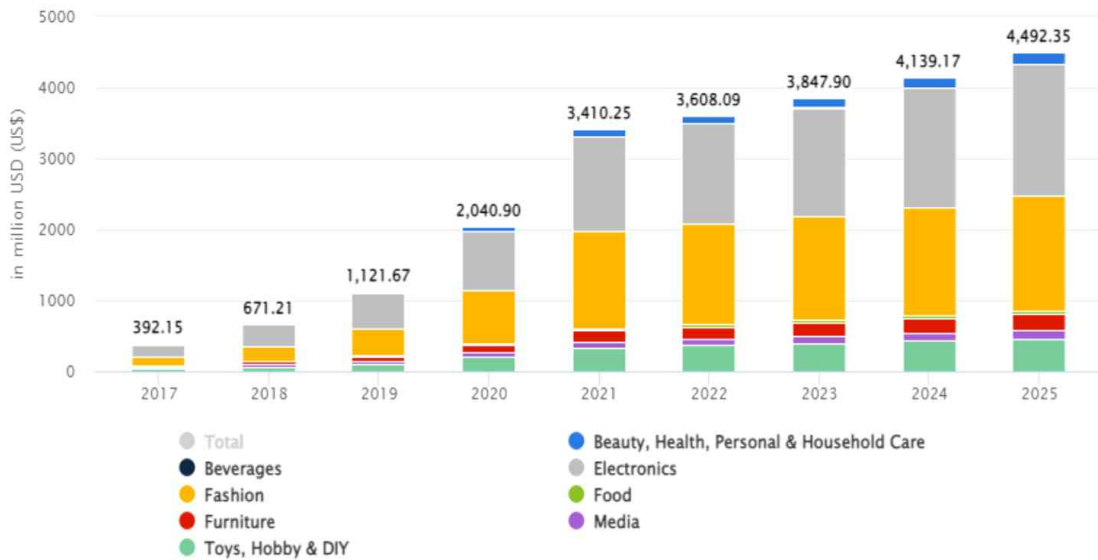


자료: EIU

- 케냐 정부는 휴대폰 및 인터넷 보급률을 높여 자국을 아프리카에서 전자상거래에 가장 최적화된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음. 전자상거래에 대한 수요는 코로나19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익은 2019년 11.2억 달러에서 2021년 34.10억 달러로 204%나 급증하여 전자상거래의 발전이 향후 케냐 경제 발전에 한 축이 될 것으로 예상됨.

국내경제

[그림 3] 케냐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익 추이



자료: Statista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료품 가격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6.0% 기록

-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료품 가격 및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 상승* 등으로 전년(5.2%)보다 높은 6.0%를 기록함. 한편, 2021년부터 이어진 극심한 가뭄 및 달러화 대비 케냐 실링화 가치 하락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당분간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

* 식품 9.9%, 음료 8.7%, 식용유 35.2%, 밀가루 17.7%, 전기 및 수도요금 4.9%, 가스요금 38.2%, 비료 100% 등

-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2021년 농업 생산량이 전년 대비 약 70% 감소했으며, 2022년 들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량 수입 차질 및 달러화 대비 케냐 실링화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가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 달러화 대비 실링화 가치 : 106.5('21.5.12) → 116.0('22.4.15)

- 한편, 케냐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유가 동결, 판매사 앞 보조금 지급, 비축유 방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음. 다만, 인플레이션 억제의 중요 수단인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유보하고 있음.

- 케냐 중앙은행은 2022년 3월 열린 회의에서 기준금리(key policy rate)를 7.0%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케냐 기준금리는 2020년 4월부터 7.0%를 유지 중임.

* 2019.9월 9.0% → 2019.11월 8.5%(▼50bp) → 2020.1월 8.25%(▼25bp) → 2020.3월 7.25%(▼100bp) → 2020.4월 7.0%(▼25bp)

국내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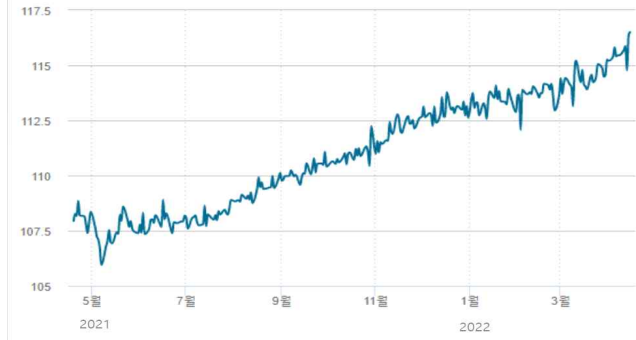
[그림4] 케냐 기준금리 변동 추이

(단위: %)



자료: 케냐 중앙은행/Trading Economics

[그림5] 케냐 실링(Shilling)화의 미 달러화 대비 환율 변동 추이



자료: Valuta FX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 지속

- 경제개발계획 Vision 2030에 맞춰 에너지·교통 분야 중심의 인프라 투자를 추진함에 따라 재정수지는 2015년 이후 매년 GDP의 -7%대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2020년 이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금 감면 조치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GDP 대비 -8.0%대로 악화된 것으로 추정됨.
- 2022년에는 코로나19 진정세로 인한 코로나19 대응 지출 감소로 재정적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되나, 정부의 대형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고 코로나19로 인해 민간소비와 기업실적 회복이 제한되면서 재정수지 적자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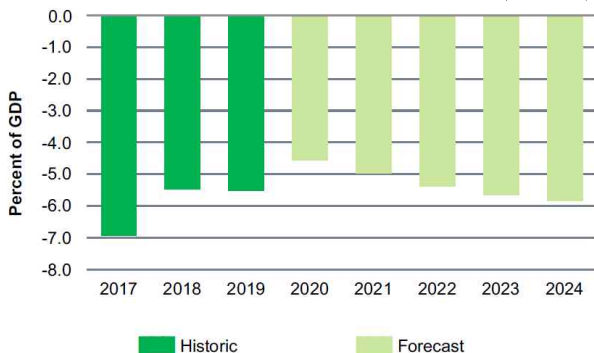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 상 수 지	-5,776	-5,033	-5,287	-4,797	-6,004
경상수지/GDP	-7.1	-5.5	-5.3	-4.7	-5.5
상 품 수 지	-10,187	-10,200	-10,683	-8,430	-11,463
상 품 수 출	5,801	6,087	5,871	6,052	6,711
상 품 수 입	15,988	16,286	16,554	14,482	18,174
외 환 보 유 액	7,291	8,120	9,037	8,251	8,785
총 외 채	36,424	42,068	52,058	57,341	62,423
총외채잔액/GDP	44.4	48.9	51.8	56.6	56.9
D.S.R.	58.9	38.7	46.4	42.7	34.0

자료: IMF, EIU, OECD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 증가로 2022년도 경상수지 적자 폭 확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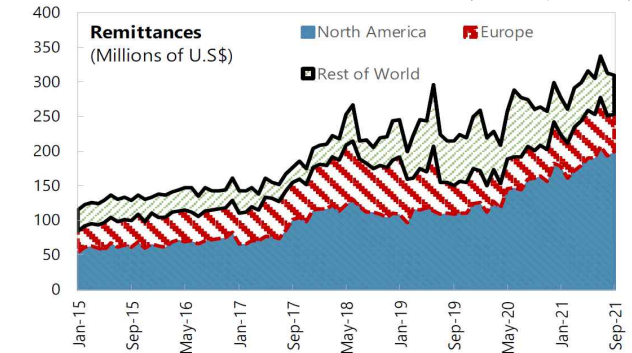
- 2021년에는 비거주자 해외송금 유입이 증가한 반면,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5%의 상품수입 증가 및 관광업의 외화수입 감소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25.2% 증가하였음.
- 케냐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2년 2월 해외송금 유입액은 3.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함. 미국으로부터의 송금액이 전체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케냐 이주노동자들이 많은 걸프 국가(사우디, UAE, 카타르, 바레인)들로부터의 송금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관광업의 회복 지연, 원유 등의 상품수입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케냐 정부는 해외투자 유입보다는 외채로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고 있어 외채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6] 연도별 GDP 대비 경상수지 추이 및 전망 (단위: %)



자료: IHS Market

[그림 7] 외국 거주 케냐인의 거주지역별 송금 유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MF

외채상환능력

GDP 대비 외채비중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외채상환능력 악화 우려

- 2021년 말 케냐의 총외채잔액은 전년 대비 8.6% 증가한 624억 달러로,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전년 대비 0.3%p 상승한 56.9%로 추정됨. 케냐는 정부의 인프라 투자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공공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자본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조세수입 및 FDI 등의 민간자본 공급이 크지 않아 적자 보전을 위한 공공부채 및 외채 조달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GDP 대비 비중은 공공부채가 2015년 50.2%에서 2021년 72.1%로, 총외채잔액이 2015년 40.6%에서 2021년 62.3%로 상승 추정

- EIU(2022. 3월)에 따르면, 케냐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그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2021년 말 기준 총외채잔액은 총수출액의 531.8%, D.S.R.은 전년 대비 8.7%p 하락한 34.0%로 추정됨. 외채원리금 상환액은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이나 총수출액 증가로 D.S.R.이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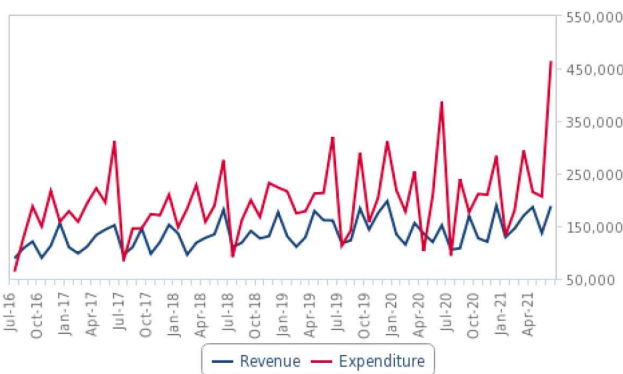
* 총외채잔액/총수출 : 384.2%('18) → 446.5%('19) → 579.6%('20) → 531.8%('21)

* D.S.R: 38.7%('18) → 46.4%('19) → 42.7%('20) → 34.0%('21)

- 2021년 말 케냐의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 대비 4.6개월분으로 전년 대비 0.4개월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 관광업 위축 등에 따른 외화소득 급감, 실링화 가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추정됨.

- 세계은행은 2022년 3월 17일 코로나19 이후 케냐의 경제 회복 및 정부재정 개선을 위해 연이율 3%의 조건으로 7.5억 달러 개발정책운영(Development Policy Operation, DPO) 대출을 승인하였음. 세계은행은 2019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케냐 앞 DPO 대출을 승인하였으며, 누적 대출액은 32.5억 달러임.

[그림 8] 케냐 정부의 분기별 수입·지출 규모
(단위: 백만 실링)



자료: Fitch Solution

[그림 9] 연도별 GDP 대비 공공부채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EIU

구조적취약성

가뭄, 폭우 등 자연재해 및 감염병에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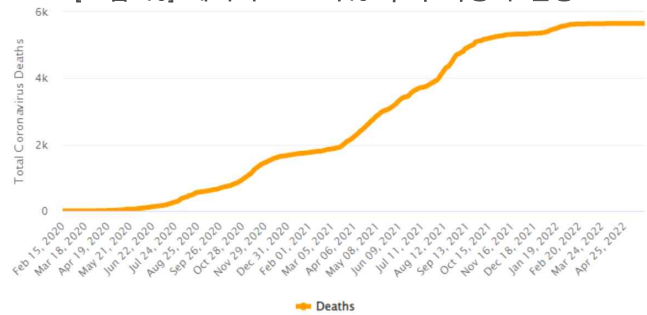
- 농업은 케냐 경제의 주요 산업으로 2020년 기준 GDP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나, 농업 인프라 부족, 재해관리 능력 부족 등으로 가뭄, 폭우 등 자연재해 및 감염병에 취약하며 이는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의 주요 위험요인임.
- 케냐는 1990~2020년의 30년 간 총 69건의 자연재해와 32건의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최소 5,235명이 사망하였으며, 약 2.4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기록함. 2022년 5월 24일 기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는 5,651명임.

[표 1] 케냐의 1990~2020년 주요 자연재해 및 피해 현황

구분	발생(건)	사망자 수	피해액(US\$천)
가뭄	16	196	1,500
지진	2	1	100,000
감염병	32	3,685	0
홍수	45	1,150	136,038
산사태	5	153	0
태풍	1	50	0
합계	101	5,235	237,538

자료: World Bank, Climate Risk Country Profile

[그림 10] 케냐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현황



자료: Worldometers

전력·수자원 등 기본 인프라는 여전히 취약

- 케냐는 2019년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서 141개국 중 종합 95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인프라 부문은 110위를 기록하였음. 교통 인프라는 경제개발계획인 Vision 2030에 맞춰 철도·도로 건설 및 보수, 항만 개발, 공항 건설 등 전방위적 투자¹⁾로 141개국 81위를 차지하며 주변국²⁾에 비해 양호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나, 전기·가스 등 유틸리티 관련 인프라³⁾는 115위로 여전히 열악한 수준임.

* 교통 인프라 순위 : 르완다 71위, 우간다 75위, 탄자니아 110위, 에티오피아 121위

** 세부 구성항목: 전력 보급 112위, 전력공급 품질 114위, 안전하지 않은 식수 노출 113위, 물 공급 안전도 116위

- 케냐 정부의 전력 생산 및 송·배전 관련 투자 확대로 전력 보급률은 2012/13회계년도 기준 23%에서 2018년 2월 72%로 상승하는 등 유틸리티 인프라 개발이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케냐 정부의 3차 중기계획(MTP-III) 목표인 2022년 말까지 전력 보급률 100% 달성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보고서에 따르면, 케냐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 용량을 2022년까지 최대 5,221MW까지 늘리고자 함.
- 한편, 안전한 식수 공급률은 2013년 53.3%에서 2017년 58%로, 위생시설 보급률(sanitation coverage)은 67%에서 74%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저소득층이 식수와 위생시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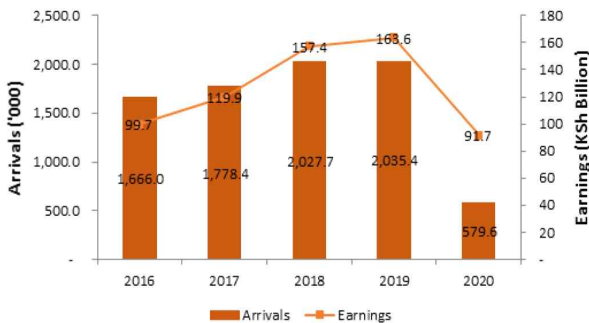
1) AfDB에 따르면 케냐는 2019년 4월 기준 지난 5년 간 도로와 관련하여 신규 건설(1,304km), 개선(535km), 정비(4,212km), 유지보수(154,198km)의 성과를 거두었음.

구조적취약성

관광업은 외부환경에 취약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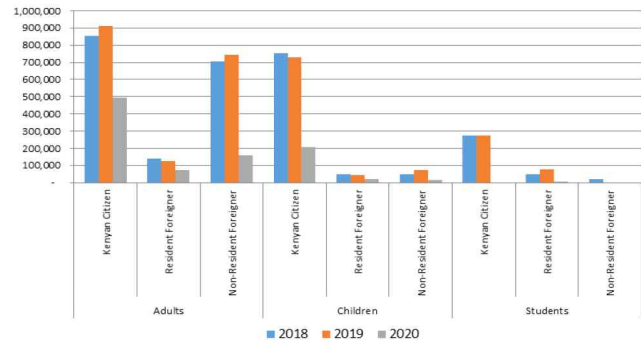
- 케냐의 관광업은 2019년 기준 GDP의 8%(260억 달러)를 차지하는 산업으로 외화 획득과 고용 창출에 기여해옴. 다만,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광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케냐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9년 약 204만 명에서 2020년에는 71.5% 감소한 약 58만 명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 관광업은 산업 특성상 외부환경에 민감하여 주요 관광지지의 치안 악화, 세계경기 침체, 감염병 발생 등 정부의 통제 영역 밖에 있는 외부변수에 크게 취약한 구조를 지님.
- 케냐는 2013년 이후 소말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알샤바브(Al-Shabaab)에 의한 테러 공격이 빈발하고 세계보건기구(WTO)에 의해 에볼라 발생 위험국으로 지정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음.

[그림 11] 케냐 입국자 수 및 관광 수입 현황



자료: Economic Survey 2021_Kenya

[그림 12] 케냐의 주요 관광지 방문자 현황



자료: Economic Survey 2021_Kenya

성장잠재력

수력 및 기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방식의 다각화를 통한 전력난 해소

- 케냐는 지리적으로 지열, 풍력, 태양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 성장 가능성이 풍부함. 2020년 기준 전력 생산량의 93.5%가 수력발전 및 신재생 에너지이며, 나머지 6.5%는 화력발전임. 정부는 2008년 발표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Vision 2030'의 3차 중기계획(MTP-III, 2018~22년)에서 전력 산업 목표* 달성을 위해 송전선 건설, 재생에너지 자원 파악 및 자원 지도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임.

* ①발전용량을 2022년까지 5,221MW로 증대, ②송전망 확대를 위한 송전선 건설(에티오피아-케냐, 케냐-우간다, 케냐-탄자니아 간 상호 연결 송전선 건설 등), ③Last Mile Connectivity 프로젝트(500만 가구에서 사용 가능한 전기 확보), ④재생 에너지 활용 기술 확대(재생 에너지 자원 파악 및 자원 지도 개발, 지역 역량 개발 촉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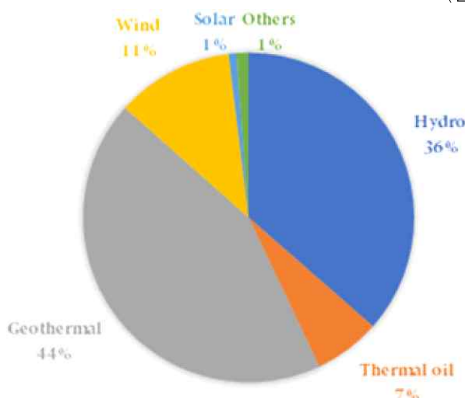
-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로의 완전한 전환 및 에너지 보급률 100% 달성, 국가 온실가스 목표에 따라 탄소 배출량 30% 감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12년 수력발전 비중이 전체 전력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수력발전 비중이 높았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현상의 심화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음. 이를 탈피하기 위하여 정부는 발전방식의 다각화를 통해 전력난을 해소하고자 노력해옴.

* 전체 전력 생산량 중 수력발전 비중 : 50%(2012) → 35%(2018) → 36%(2020)

- 2020년 기준 신재생 에너지 생산은 지열 44%, 수력 36%, 풍력 11%를 차지하였으며, 케냐의 총 전력 생산량은 2020년 11,483Gwh로 전년 대비 0.5% 증가하고, 전력 수입은 137Gwh로 3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케냐는 2019년 3월 에너지법안을 제정하여 에너지부가 2008년 시행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 FIT)를 법안에 추가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을 촉진함.

[그림 13] 2020년 케냐 전력 생산의 발전원별 비중 (단위: %)



자료: Economic Survey 2021_Kenya

[표 2] 케냐의 발전원별 전력 생산, 수입, 수출 추이 (단위: GWh)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력	2,776.8	3,986.4	3,205.3	4,232.7
화력	2,534.1	1,545.8	1,313.3	754.5
지열	4,765.6	5,127.8	5,234.7	5,059.8
열병합	1.9	2.5	0.3	0.2
풍력	61.3	375.6	1,562.7	1,331.4
태양광	0	13.68	92.3	88.4
수입	229.6	130.3	212.0	136.7
수출	12.3	35.2	16.2	16.5
총계	10,381	11,217	11,636	11,620

자료: Economic Survey 2021_Kenya

정책성과

Vision 2030 및 4대 국정과제(Big 4) 추진 중

- 2008년 초 케냐 정부는 2030년까지 중소득국 진입과 산업화를 목표로하는 중장기 국가성장전략 'Vision 2030'²⁾을 발표하고, 제1차 중기계획(MTP-I, 2008~12년)과 제2차 중기계획(MTP-II, 2013~17년)에 이어 현재 제3차 중기계획(MTP-III, 2018~22년)을 추진 중임.
- 제2차 중기계획은 인프라 개발, 취약계층 앞 금융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포용적 금융 제공, 학교 입학 학생 증가, 유아사망률 감소, 여성 역량 강화 등의 인적자원 개발 관련 성과는 유의미하였으나 경제성장률(목표: 연평균 10%), 실업률 감소, 소득 불평등 해소 등 관련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제3차 중기계획의 9대 주요 분야는 인프라 개발, ICT 육성, 과학·기술·혁신(STI) 촉진, 토지 개혁, 공공 분야 개혁, 노동·고용 창출, 국가 가치 및 윤리 확립, 가뭄에 따른 재난 해소, 안보·평화 구축 및 갈등 해결임.
- 인프라 관련 주요 추진 사업은 조모 케냐타 국제공항 터미널 1-B·C·D 확장·보수 및 제2활주로 건설, 몸바사항 제2 컨테이너 터미널 2단계 사업 확장, 동고쿤두 자유무역항 개발, 라무항의 3개 정박지 완공 및 29개 정박지 증설, 표준궤도 철도 사업 2단계(나이로비-말라바) 건설, 10,000km 포장도로 건설 및 개보수, 전력 발전용량을 2021/22 회계연도까지 5,221MW로 확대(2017/18회계연도 기준 2,699MW), 배전용 변전소 116개 건설 및 총연장 1,244km의 전선 설치를 통한 배전망 확충 사업임.
- 한편, 케냐 정부는 Vision 2030 달성을 위해 제3차 중기계획과 더불어 2018~22년 간 4대 국정과제(Big 4)로 ①제조업* 활성화, ②서민주택 공급, ③보건·의료 향상, ④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선정하여 추진 중임.
 - * 특히 농산물 가공업에 집중 투자 예정으로, 총 농업생산 중 농산물 가공업이 2022년까지 최소 50%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4대 국정과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 경제로의 전환이며, 세부목표는 2022년까지 ①GDP 대비 제조업 비중 15%로 확대, ②최소 50만 개의 신규 주택 공급, ③전 국민 앞 보편적 의료 보장 제공, ④전 국민의 식량 안보 보장 및 영양 개선임.
- Vision 2030과 4대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나, 현 정권은 재정 건전화 정책도 함께 추진 중인 관계로 재정적자 규모 축소를 위해 정부지출을 줄이면서 기 계획했던 인프라 투자, 사회보장 정책 등과 연관된 일부 사업이 지연 또는 취소되고 있음.
- 2021/22회계연도 BIG 4 관련 예산은 총 14억 2100만 달러로 전년 12억 3,470만 달러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 예산규모(약 40억 달러)에 비해 여전히 현저하게 적은 예산으로 2022년까지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연도별 Big 4 핵심 분야 예산 배정(백만 달러): 4,000('19년) → 4,500('20년) → 1,234('21년) → 1,424('22년)

2) Vision 2030은 크게 경제, 사회, 정치 분야로 나뉘어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2012년부터 연평균 10%의 경제성장을 달성, 사회적으로는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평등한 사회 발전을 통한 공정하고 화합하는 사회 실현, 정치적으로는 인권을 보장하고 일·결과 중심의 정치기반을 통한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함. 이러한 목표 아래 10대 주요 과제로 거시경제 안정, 거버넌스 개혁, 소득 불평등 개선 및 빈곤층의 부 창출 기회 제공, 인프라 확대, 에너지 개선, 과학·기술·혁신 강화, 토지개혁, 인적자원 개발, 치안 강화, 공공분야 개혁을, 6대 육성 분야로 관광업, 농축산업, 무역, 제조업, 금융, IT를 선정하였음.

정치안정

2022년 대선 및 총선 앞두고 정치적 대립과 갈등 심화 전망

- 케냐는 2022년 8월 9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루토 현 부통령과 야당 지도자 오딩가 후보가 유력한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두 후보 간 양자대결 구도가 심화되고 있음.
- 칼렌진족 출신 통합공화당(URP) 소속의 루토 현 부통령은 2022년 대선 출마를 전제로 키쿠유족 출신 케냐타 현 대통령이 속한 국민연합당(TNA)과의 연합당인 주빌리(Jubilee)당을 2016년 9월 창당, 2017년 대선에서 케냐타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활동하였음. 그러나 케냐타 대통령이 당초 약속과 달리 루토 현 부통령은 부패한 정치인이라고 비난하며 야당 지도자인 오딩가를 공식 지지함에 따라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루토 후보는 Kenya Kwanza 정당연합을 형성하였으며, 오딩가 후보는 자신이 이끄는 오렌지민주운동(ODM)과 여당인 주빌리당을 포함해 26개 정당으로 구성된 아지미오 라 우모자 정당연합을 형성하여 각각 대선에 출마함.
- 양 정당연합 내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지속되면서 일부 탈락 인사들의 불만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케냐에서 보통 선거 전후로 빈발하는 대규모 폭력 사태는 현재까지 일어나지 않음.
- 민간 여론조사 기관인 Radio Africa가 실시한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2022년 1·2월 조사에서는 루토 후보가 큰 차이로 앞섰으나 3·4월 조사에서는 양 후보가 5% 범위 내로 접전을 보이고 있음. 두 후보 모두 출신지를 포함한 기존 지지 지역에서 우세를 점한 가운데, 케냐 산(Mount Kenya) 및 중부 지역에서의 득표가 금번 대선 승리³⁾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2월 말 케냐타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인 오딩가 후보를 공식 지지하면서 부동층의 표가 오딩가 후보 쪽으로 움직인 것으로 추정됨.

[표 3] 2022년 케냐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 추이

(단위: %)

구분	1월	2월	3월	4월
루토 후보	46	47	43	45.5
오딩가 후보	35	35	47	41.3
부동층	14	15	3.7	6.7

자료: Radio Africa, 주 케냐 대사관

3) 1차 투표에서 당선 되기 위해서는 전체 유효투표의 과반 및 47개 주의 절반 이상에서 최소 25%를 동시에 득표해야 함. 조건 미충족 시, 최다 투표 2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함.

사회안정

소말리아 테러 조직 알샤바브(Al-Shabaab)에 의한 테러 위험 상존

- 소말리아에 근거지를 둔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인 알샤바브(Al-Shabaab)를 축출하기 위해 조직된 아프리카연합(AU)의 소말리아 평화유지군(African Union Mission In Somalia)에 케냐 정부가 2011년 10월 군 병력을 파병한 이후, 알샤바브는 케냐를 주요 공격 대상국으로 지정, 급조 폭발물에 의한 무차별 테러 공격*을 자행하여 케냐의 치안이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관광업·물류업 등 서비스업 위축, 외국인 투자 감소 등의 경제적 타격도 심각하게 받고 있음.
 - * 주요 사건: 2013년 나이로비 웨스트게이트 쇼핑몰 테러(67명 사망), 2015년 모리 대학교 가리사 캠퍼스 테러(148명 사망), 2019년 나이로비 호텔 테러(10명 이상 사망), 케냐-소말리아 국경 인근 북동부 지역 도로 폭탄 매설 테러(10명 이상 사망), 2022년 케냐 해안 지역 라무카운티 마을 테러(6명 사망)
- 최근 소말리아 접경 지역인 케냐 북동부(만다라, 와지라, 가리사 지역)에 대한 테러 공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2022년 대선으로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테러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 * 주요 사건: 2020년 1월 미군-케냐군 합동기지 공격으로 미국인 3명 등의 사상자 발생
2022년 3월 케냐 북부 및 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 건설에 대한 테러 공격으로 공사 일시 중단

2021년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전년 대비 4단계 하락한 128위 기록

- 2021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 보고서에서 케냐는 30점(100점 만점)으로 조사 대상 180개국 중 128위를 기록하였음. 이는 1년 전 124위보다 4단계 하락한 결과로, 동아프리카공동체(EAC) 회원국들 중 르완다, 탄자니아보다는 낮고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 남수단보다는 높은 순위임.
 - * EAC 회원국들의 부패인식지수: 르완다(53점, 52위), 탄자니아(39점, 87위), 우간다(27점, 144위), 콩고민주공화국(19점, 169위), 부룬디(19점, 169위), 남수단(11점, 180위)
- 케냐는 부정부패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어 외국인투자 유치에 주요 걸림돌로 적용하고 있음. 케냐 타 대통령은 집권 이후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정부 관료들의 극심한 부정부패가 공공재정에 손해를 끼친 것과 관련하여 관료들의 부정 혐의 발견 시 즉시 기소 및 처벌하고 있음.
- 케냐 정부가 부패 척결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부패 척결 이행 여부에 따른 개선 가능성이 주목됨.

국제관계

동아프리카의 지역경제공동체 내 선도적 역할 수행

- 케냐는 동아프리카의 맹주국으로서 아프리카 역내 지역통합을 중시하여 지역공동체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케냐는 현재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동아프리카 정부간 개발기구(IGAD),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회원국임.
- EAC는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의 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세동맹과 단일 공동시장을 형성하여 역내 상품·서비스·자본·노동 이동이 자유로움. 이에 더해 2023년까지 단일통화 도입으로 통화동맹도 이루고자 추진 중이나 속도는 느린 편임.
- AfCFTA는 2012년 아프리카연합(AU) 총회에서 아프리카 역내 교역 활성화를 위해 창설된 자유무역지대로, 2019년 5월 30일 공식 발효되었음. 남아공 소재 Trade Law Center(Tralac)에 따르면 55개 AU 회원국 중 에리트레아를 제외한 54개국이 서명하였으며, 2022년 5월 기준 케냐 포함 43개국이 비준을 완료함. AfCFTA는 2021년 1월 1일 본격적으로 출범하였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자유무역지대임.

서방 및 아시아 국가와의 우호적 관계 형성 노력

- 케냐는 영연방의 일원으로, 전통적으로 영국, 미국 등 서방 국가와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실질적인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도 확대하여 왔음.
- 케냐타 대통령 집권 초기에는 국제사법재판소(ICC)의 기소⁴⁾ 등에 따라 서방국가와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졌으나, 이후 미국 대통령의 아프리카 국가 순방, AGOA 연장⁵⁾, Power Africa Initiative(전력·인프라 친환경 에너지사업) 참여 등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어 현재 동아프리카 내에서 미국의 전략적인 경제·안보 협력국의 지위를 유지⁶⁾하고 있음.
- 2020년 2월 케냐는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로는 최초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인 협의는 본격적으로 착수된 바 없음. 또한, 양자 무역협정에 대한 EAC, AfCFTA 등 지역공동체의 문제 제기로 FTA 추진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 2021년 3월 케냐는 영국산 상품에 대한 영구 면세, 민감 품목 보호의 점진적 폐지 등을 담고 있는 무역협정을 체결함. 영국 수출기업들은 평균세율이 25%에 달하는 케냐의 수입관세 적용에서 면제되어 다른 국가들보다 경쟁우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중국은 케냐의 최대 수입상대국(2020년 기준 상품수입의 21.9%)으로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높으며, 중국 자본을 기반으로 한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로 인프라 투자에 따른 대 중국 채무액이 큼.

4) 2007년 대선 이후 선거 결과를 놓고 발생한 종족 간 유혈사태 배후를 주도한 혐의로 케냐타 대통령이 ICC에 기소되었다가 ICC 공소가 2014년 12월 철회됨.

5) 아프리카성장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발전과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출품에 대한 미국 시장 무관세 접근을 허용하는 미국 정부의 특혜무역조치임. 2000년 첫 시행 후 현재 2025년까지 시효가 연장됨.

6) 케냐는 미국 민간 기업의 아프리카 내 주요 투자처로, 특히 ICT, 서비스, 금융, 재생에너지(수력, 태양광, 풍력)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함.

외채상환태도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하나 연체액이 소폭 증가 추세

- 케냐는 1994년, 2000년, 2004, 2021년 네 차례에 걸쳐 파리클럽과 채무재조정을 실시함. 파리클럽의 최신 공시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케냐의 파리클럽 회원국 및 관련 기관앞에 대한 채무잔액은 총 3,103백만 달러로, ODA 채무잔액은 2,885백만 달러이며 그 외 채무잔액은 218백만 달러임.
- 2021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외채규모는 2,282백만 달러(단기 305백만 달러, 중장기 1,977백만 달러)이며, 현재 잔액의 1.3%에 해당하는 30.7백만 달러를 연체* 중임.
* 연체액(백만 달러): 10.0('20.9월) → 15.1('21.3월) → 22.1('21.6월) → 30.7('21.9월)
- 한편, 중국은 세계은행에 이어 케냐의 두 번째로 큰 대외 채권자이며, 지난 10년간 중국으로부터 대출한 자금은 케냐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됨. 2021년 1월 중국은 270억 실링(약 2,700억원) 규모의 케냐 부채의 상환기한을 6개월 연장한 바 있음.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6등급(2021.06)	6등급(2020.06)
Moody's	B2 (2022.01)	B2 (2021.05)
Fitch	B+ (2022.03)	B+ (2021.05)

OECD와 국제신용평가 3사 모두 기존 등급 유지

- OECD는 2004년 6월 케냐의 국별 신용등급을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Moody's는 다변화된 경제구조, 금융 부문의 성숙도, 양호한 중장기 경제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채 증가 추세에 비해 부족한 재정수입, 재정정책의 효과성 및 신뢰도 하락 등으로 케냐에 대하여 B2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Fitch 또한 안정적이고 견실한 경제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높은 공공부채·외채 비중, 재정 건전화 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케냐에 대하여 B+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케냐 경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증가 등으로 약 10년 간 3~5%대 성장을 시현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0.3% 역성장을 기록하였음. 2021년에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민간소비 회복, Vision 2030 및 4대 국정과제(Big 4) 이행에 따른 공공 인프라 투자,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7.2%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한 것으로 추정됨.
- 케냐 사회는 정치적 성향보다는 출신 부족에 따라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아 과거 대선 때마다 부족 간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어 왔음. 2022년 8월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루토 현 부통령과 야당 지도자 오딩가 후보가 유력한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두 후보 간 양자대결 구도가 심화되고 있음.
- 케냐는 EAC 등 지역공동체 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동아프리카 내 전략적인 경제·안보 협력국임. 한편, 중국과의 경제협력 증대로 교역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대 중국 채무액도 큼.